

Gülsün Karamustafa
Stairway
04:45 min., 2001

이스탄불 구시가에 위치한 오래된 계단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네 명의 루마니아 아이들이 있다. 우울한 음악과 아이들의 흐릿한 이미지는, 이 아이들이 길거리 연주로 돈을 벌기 위해 이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단 세 달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달이 지난 뒤에는 다른 아이들로 대체될 것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암시한다.

Stairway shows four kids from Romania playing music on a historical stairway in an old district of Istanbul. The melancholic music and fading images of these children points out the cruel reality that these children have permission to stay only three months in the country to earn money by playing music on the street, and that they will be replaced by other kids after that period.

Serfer Memişoğlu
Untitled
06:38 min., 2005

14세기에 제노아인들이 이스탄불의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지었다는 갈라타 탑은 한때 화재 전망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 도시의 그림자에 가려 과거의 위력을 잃은, 노스탤지어의 상징물이다. 탑 주위에서 격렬히 움직이는 아이들은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In this work, we are presented the image of Galata Tower which was built by Geneovese in 14th century on the top of the highest hill of Istanbul. It was origianlly used as a fire observation tower however now it's lost its power among the silhouette of the modern city becoming a symbol of nostalgia. The children who dramatically move around the tower tell a fragile story.

Ahmet ögüt
Shortcircuit
03:32 min., 2006

도시 교외의 어두운 밤거리, 희미한 가로등불과 지나가는 차들의 전조등불 아래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만이 들린다. 이와 같은 모호한 장면 때문에, 관객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측해야 한다. 작가가 의도한 이와 같은 상황은 밤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상 밖의 위험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The artist shows a dark street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t night. We can only hear the noise of children playing under the weak street light and the headlights of cars passing by. The artist creates an ambiguous scene, one that forces the viewer to attempt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 the darkness. The situation initiated by artist creates an atmosphere which triggers our memory about all unexpected and dangerous things that could come about on the streets at night.

Candid Stories
숨김없는 이야기
2008. 5. 21 - 6. 13

5



6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90번지
우 110-280
T +82.(0)2.760.4721-3
F +82.(0)2.760.4725

Insa Art Space
of the Arts Counci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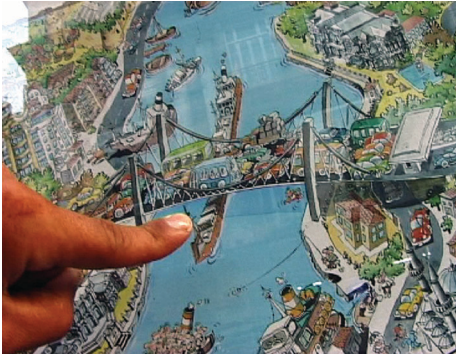
90 Wonseo-dong Jongno-gu
Seoul 110-280 Korea
www.insaartspace.or.kr
www.arko.or.kr

관람시간
11시-7시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Opening Hours
11a.m - 19p.m
Closed on Monday



1



2



3



4



그림1
Esra Ersen,
This is the Disney World, 2000

그림3
Hatice Gülerüze
Strange Intimacies, 2005

그림2
Osman Bozkurt
Auto-Park: The Highway Parks of Istanbul, 2003

그림4
Can Altay
"We're Papermen" he said, 2004

Insa Art Space
of the Arts Council Korea

PLATFORM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ER

Candid Stories

숨김없는 이야기

2008. 5. 21 - 6. 13

인사미술공간과 터키의 플랫폼 가란티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는 터키 비디오 상영 프로그램 ‘숨김없는 이야기’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7명의 터키 비디오 작가들의 작업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들이 이스탄불과 관계하는 방식들과 그 다양성에 주목한다. 지난 3월 상영되었던 박주연의 〈여름빛〉과 함께 발간된 아티스트북 『행인』에는 이방인으로서 이스탄불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진 데에 비해,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들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와 끊임없이 직접적·일상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현지 작가들의 관점을 보여준다.

Insa Art Space, in collaboration with Platform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er of Turkey, presents a screening program, 'Candid Stories'. The program is composed of the works of seven Turkish video artists, focusing on how they relate with the city of Istanbul and how the forms of those relationships vary. While Park Jooyeon's *Summer Light*, IAS's previously projected film, and the publication *Passer-by* comprehend the standpoint of the artist experiencing and reminiscing Istanbul as a stranger to the city, these works contain the view of the local artists who, inevitably and incessantly, communicate with Istanbul as a part of their everyday life.

숨김없는 이야기

오큐 오즈소이

큐레이터, 플랫폼 가란티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한국, 특히 서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나는 서울특별시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서울에의 극심한 인구 집중은 주거, 교통, 교육의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낳았다.”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이 문장을 출발점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대도시에서 보이는 유사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스크리닝을 기획했다. 터키는 지난 삼십여 년에 걸쳐 변화하였고,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 역시 서울과 유사한 문제들과 맞닥뜨렸다.

이스탄불의 인구는 약 1400만 명에 달한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문화적·사회적·공간적·경제적·심리적 구조에 격심한 변동을 가져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지방으로부터 도시로 옮겨오는 전국적인 이주 현상이 계속되었고, 이는 도시의 조밀함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이주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각자의 꿈과 희망을 품고 왔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혹사당하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지금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을 앞두고 있고 이스탄불은 2010년의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스탄불의 도시적·사회적 지형의 변화는 더욱 급격해졌다. 작고 친밀한 거리들은 상업지구, 쇼핑몰, 고급스러운 주택들, 폐쇄된 커뮤니티로 대체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인공적이고 소외된 풍경을 형성했다.

이러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수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던 지역사회의 일원들은 저가로 제공되는 교외의 주택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 시당국은 이러한 추이를 지원하는 반면 도시의 실제적인 다이내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원들은 일상적 실천 속에서 위와 같은 변화들을 거부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많은 예술가들 역시 위와 같은 이스탄불의 문제적 이슈에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모든 도시는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갖는다. 하지만 여기 선별된 작업들은 모두 친숙하면서도 낯선 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When I started to make research on Korea and especially Seoul, I found a sentence written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that reads: "The heavy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Seoul has caused various urban problems, from the increased demands for housing,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This sentence became my starting point in preparing this video screening programme, which aims to focus on similar problems that can be seen in big 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urkey has gone through a huge transi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nd Istanbul as its largest city has faced similar problems to Seoul.

Istanbul has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14 million people. The speed of growth of the city causes drastic changes on its cultural, social, spatial, economical and psychological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onstant stream of national immigration from the rural areas of the country since the 1970s has increased pressure on the city's density. Although these people bring with them their dreams and hopes for better lives, most of them have found themselves in a gigantic machine which grinds them between its gear wheel as time passes.

Additionally, as Turkey is in the process of being a member of European Union and Istanbul will act as a Culture Capital of Europe in 2010, the urban and social view of the city are drastically shifted from small, intimate quarters to commercial districts, shopping malls, luxurious houses, gated communities, all of which have created an artificial, alienated landscape to its own public. Because of intensive gentrification in certain central areas of the city, communities who have been living in the same neighbourhoods for years are being forced to move to the outskirts of Istanbul into new social housing schemes. The city authorities have been supporting these changes, however they do not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al dynamics of the city. In daily practice these communities find a way to reject and to survive these changes in their unique ways and many artists are choosing to respond to these problematic issues of Istanbul.

Every city has its own story, but the video works selected here together tell stories of the uncanny city.

Esra Ersen

This is the Disney World

09:15 min., 2000

Osman Bozkurt

Auto-Park: The Highway

Parks of Istanbul

15:00 min., 2003

Hatice Güleryüze

Strange Intimacies

17:42 min., 2005

Can Altay

"We're Papermen " he said

09:56 min., 2004

사랑, 폭력, 믿음, 성장, 아버지들, 그리고 도시라는 여섯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거리의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한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한다. 이 작업은 관객들이 실재하는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거리를 없애고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This is the Disney World documents a group of street children. The children tell stories from their lives, sing songs, talk about their dreams. The video is divided into single chapters about love, violence, fate, growing up, fathers and the city. Through this work, the artist creates a situation which leads viewers to understand an existing situation instead of ignoring it, to erase the distance and help to look at it closer.

이 작품은 도시의 변화에 맞서는 지역사회의 저항을 관찰한다. 이스탄불에서는 사람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녹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스탄불 근교 주민들은 고속도로들 사이에 있는 녹지를 소풍 장소로 사용한다. 이는 시당국에 맞서는 시민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The work observes a social resistance of existing communities against the changes in the city. As Istanbul is a city where people suffer to find proper green areas to enjoy and rest, people who live outskirts of Istanbul use green area between highways as their picnic area. It can be named as a civil action against the city authorities.

이스탄불을 경험하는 외국인들의 기억을 담아낸다. 도시와 도시의 방문객들 간에 맺어지는 다양한 애증관계의 기록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탄불이라는 공간을 새로이 조명한다.

The video *Strange Intimacies* consists of memories of foreigners who experienced the city. It documents love and h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its visitors.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와 같은 터키의 대도시들에는 폐지나 되팔 수 있는 쓰레기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작업은 이러한 쓰레기 처리의 노동 구조를 포착한다. 이 시스템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그 자신은 공인되지 못한 것임에도 결과적으로는 공인된 시스템의 순환을 돕는다.

The artist captures the working system of unofficial rubbish disposal service in big cities like Istanbul and Ankara. These men collect rubbish paper and other materials that can be sold. It's a self invented working profession, one that is unofficial and yet does help the official system.